

‘美시애틀지역 진출 스타트업 찾아요’...8월29일까지 한상넷서 모집

- 재외동포청, AI·빅데이터·친환경 분야 스타트업 선발 및 진출 지원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,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‘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’ 참여 기업을 한상넷(www.hansang.net)에서 8.11.(월)부터 8.29(금)까지 모집한다.
- ‘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’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▲AI·빅데이터 ▲친환경 분야 스타트업 중 우수 기업을 뽑아 멘토링하고,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투자유치회에 참가시키는 사업이다.
 - 시애틀 투자유치회는 동포청이 오는 11월 자체 개최하는 행사로 재외동포 투자자, 창업자, IT 종사자 및 현지 투자자가 참석 예정이며, ▲스타트업들의 기업 발표(IR), ▲스타트업, 투자자 간 1:1 비즈니스미팅, ▲네트워킹 행사, ▲글로벌 기업 본사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.
 -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(Microsoft), 아마존(Amazon) 등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, 벤처캐피털(VC) 및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 각광 받는 지역이다.
- 이번 사업은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,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 등 현지 기관 뿐 아니라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, 창발* 등 현지 사정과 우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포 경제인과의 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,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끝.

* 창발(창의와발명) : 시애틀 지역 차세대 한인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경아	032-585-3220
		담당자	주무관	이영복	032-585-3227